

2026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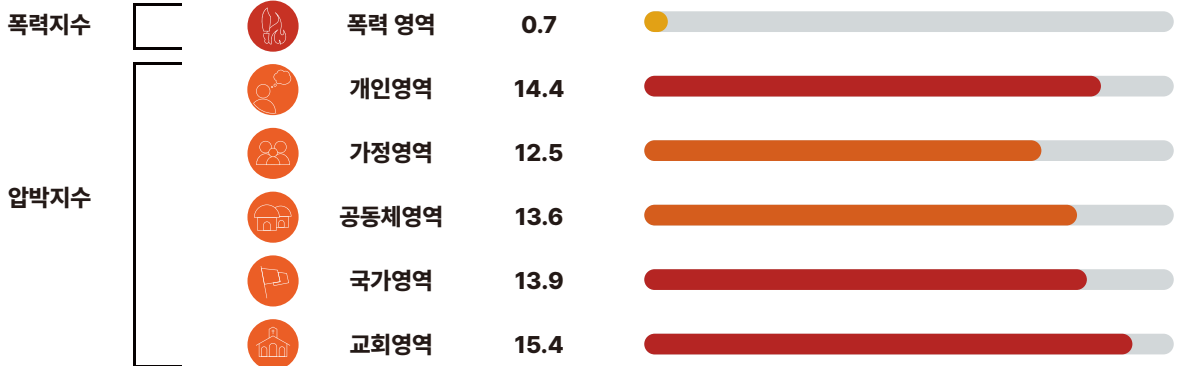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WORLD WATCH LIST NO.
35위



©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6×16.7=100).

중요한 발견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주의 국가로, 국가기관 요원들이 개별 신자와 종교 단체는 물론 사회 전반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각종 제한을 가한다. 러시아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조차 주일 예배가 감시받을 수 있다. 기독교 자료의 인쇄와 수입도 제한된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은 국가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지역 사회로부터도 가장 심각한 권리 침해를 겪는다.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인구 : 6,677,000명

기독교인 수 : 95,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권위주의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5,000	1.4
이슬람	6,366,000	95.3
불가지론·무신론	212,100	3.2
기타	3,800	0.1
	합계	100%

출처¹

투르크메니스탄은 소련 붕괴 과정에서 1991년 독립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며, 실질적인 야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실업률과 빈곤율은 높다. 또한 강제 노동을 동원하는 교도소 체제를 운영해 수천 명을 열악한 환경에 수감하고 있다.

수니파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지만, 헌법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세속 국가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많은 투르크메인은 이슬람의 공식 교리보다 관습과 전통을 더 중시한다. 정부는 이슬람 성직자를 직접 임명하고 종교 활동을 감시·통제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투옥·고문하거나 행정적으로 괴롭히는 등 종교를 엄격히 제한한다.

World Christian Database에 따르면, 그다음으로 큰 종교 범주는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이며 이들은 특히 수도 아시가바트와 다른 주요 도시에 많이 거주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는 교단 간 분열이 심

하고 협력이 부족해 취약한 상태이며,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World Christian Database의 2024년 5월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교단은 러시아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이다. 개신교인들은 국가가 승인한 체계 밖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주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힌다.

US State Department의 2023 IRFR Turkmenistan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법은 기존에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해, 주소를 변경하거나 정관을 개정할 때마다 법무부(MOJ)에 재등록하도록 규정한다.”

USCIRF 2025 Turkmenistan Chapter는 투르크메니스탄을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 자유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정부는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특히 국가가 선호하는 해석과 다른 형태의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기독교인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경찰과 비밀정보기관이 이들의 활동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외국인 기독교인은 관광객은 물론 어떤 다른 자격으로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민 역시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을 방문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출국 비자가 필요하며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¹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독재적 편집증

국가의 통제를 받는 종교 기관만 허용된다. 개신교인들은 국가가 승인한 체계 밖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주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힌다. 정부는 개신교인을 정치적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며,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씨족 억압과 결합된 이슬람 억압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은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압박과 신체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개종자는 가족에 의해 집에 감금되거나 지역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 많은 개종자가 신앙을 숨기려 한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정부 당국자들이 기독교인에게 가하는 권리 침해는 전국에서 발생한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에게 가족과 지역 사회가 가하는 압박은 농촌 지역에서 더 강하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러시아 정교회는 정부가 정한 제한에 적응했기 때문에 대체로 방해받지 않는다. 예배가 감시될 수는 있지만 별다른 방해 없이 진행된다. 기독교 자료의 인쇄와 수입은 제한된다.

기독교 개종자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는 국가로부터 권리 침해를 당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다.

비(非)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비(非)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는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가 포함된다. 개종자를 제외하면 이 공동체들이 신앙 때문에 가장 심각한 권리 침해를 겪는다. 특히 교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급습, 협박, 체포, 벌금 부과 등이 발생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위치에 놓이며, 여성과 소녀들은 자율성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여성 개종자는 특히 구타, 가택 연금, 언어폭력, 협박, 성적 학대, 납치, 강제결혼에 취약하다. 한 투르크메니스탄 전문가는 '무슬림 배경의 임신한 신자들과 다른 여성들은 유산을 일으킬 목적으로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성과 소녀들은 낙인과 수치심 때문에 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며,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일도 반복된다. 여성에 대한 학대는 남편과 가족, 교회에 두려움과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여성에게 흔히 겪는 압박 지점

- 납치
- 기독교 종교 자료·가르침·의식에 대한 접근 제한
- 사회 공동체·관계망에 대한 접근 제한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성적

남성

투르크멘 사회에서 남성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남성을 겨냥한 박해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 두려움과 분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국가기관 요원들은 기독교인 남성에게 벌금을 부과할 구실을 찾으며, 당국은 지도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훈련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종교 교육도 엄격히 제한된다. 의무 군 복무 중에는 차별과 불관용, 박해를 겪는다. 가족과 지역 사회 차원에서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며, 개종자들은 괴롭힘과 심문, 차별, 공개적 모욕, 구타를 당한다.

남성에게 흔히 겪는 압박 지점

- 기독교 종교 자료·가르침·의식에 대한 접근 제한
- 사업·취업·노동 기회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징집 또는 군·민병대 복무
- 여행 금지·이동 제한
- 폭력 - 심리적
- 폭력 - 언어적



최근 5년간 WWL 추이

월드 와치 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 와치 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 점수
2026	35	71
2025	29	71
2024	29	70
2023	26	70
2022	25	69

반올림한 전체 점수는 전년과 같은 71점을 유지했다. WWL 2025보다 기록된 폭력 사건은 줄었지만, WWL 2026 순위는 전년보다 6계단 하락했다. 국가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일부 압박 영역과 폭력 지수에만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 씨족 억압과 결합된 이슬람 억압은 개인 영역과 가정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독재적 편집증은 국가 영역과 교회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국가기관 요원들은 교회와 기독교인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무슬림 가족과 친구, 마을 주민들은 개종자에게 압력을 가한다.

보고 기간 중 폭력 사례

- 개신교 목회자와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지방 당국자들로부터 괴롭힘과 체포 위협,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 중반에는 한 목회자가 기독교 모임을 계속 열면 투옥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위협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공포와 정신적 압박을 초래했다.

WWL 연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은 기독교인 수	본국을 떠나도록 내몰린 기독교인 수
2026	10*	1
2025	500*	1

이 표에는 보고 기간 중 발생한 신앙 기반 폭력 가운데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다.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보고서 중 폭력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으므로 이 수치는 최소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집계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징적인 반올림 수치(10*, 100* 또는 1,000*)를 제시하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10,000*, 100,000*, 1,000,000*과 같은 상징적 수치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개인 영역

정부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종교 문헌을 엄격히 통제한다. 기독교 자료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러한 자료의 소지는 개종의 증거로 간주되며, 개종은 가족과 문화 모두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진다. 가족과 주변 지역 사회는 개종에 대해 사회적 압박, 경제적 배제, 심지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 영역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는 개종자의 자녀들에게 극심한 압력을 가한다. 특히 부모의 뜻에 반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는다. 개종자와 개신교인의 자녀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지역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영역

개종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가족과 지역 사회(현지 이슬람 지도자 포함)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지역 사회 구성원과 국가 당국은 등록되지 않은 개신

교 단체의 기독교인들을 전도 활동 혐의로 몰아 감시하고 괴롭힌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협박과 차별, 방해, 벌금에 직면한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국가가 주도하는 급습이며, 대개 현지 무슬림 제보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영역

기독교인에 대한 투르크멘 사회의 적대감은 거대하고 적대적인 국가기구의 뒷받침을 받는다. 이 국가기구는 국민에게 사회적 획일성과 그에 따른 종교적 획일성을 강요하려 한다. 종교법은 미등록 종교 단체와 사적인 종교 교육을 금지한다. 정권은 기독교인의 표현과 활동을 검열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야당 활동을 금지한다.

교회 영역

미등록 교회가 합법적 지위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등록된 모든 교회도 3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개신교 교회는 기독교인에 적대적인 건물주들의 태도 때문에 예배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 의무 및 권리 침해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RC)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미등록 교회가 급습을 당하고 교인들이 체포·협박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다(ICCPR 제9조 및 제18조)
- 기독교인과 이들의 활동은 당국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ICCPR 제17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압박과 폭력을 겪는다(ICCPR 제18조)
- 종교 문헌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ICCPR 제18조 및 제19조)
- 여성 개종자들은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구타와 가택 연금, 언어적·신체적 학대, 협박과 배척을 당한다(ICCPR 제9조, 제12조 및 제18조)

투르크메니스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정부는 특정 종교 집단만을 표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유대인, 바하이교 신자 모두 국가의 강도 높은 감시와 억압을 겪는다.

USCIRF 2024 Turkmenistan Chapter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양심수인 무슬림들은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국가안보상의 구실 아래 계속 수감되어 있다.”



오픈도어의 투르크메니스탄 사역

오픈도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투옥되거나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고 생계 수단과 일자리를 빼앗긴 중앙아시아 신자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역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교회를 강화한다:

- 기독교 자료 배포
- 기도 지원
- 성경 교육
- 어린이·청소년 교육
- 여성 사역
- 동행 사역
- 사회·의료 사역
- 직업 훈련 및 소액 대출
- 재활센터와 같은 사회경제 개발 사업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